

##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건축구조기술사 회원 여러분!

병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올리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특별한 성취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묵묵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축구조분야 전문가인 우리들의 역할이 법령과 제도에 의하여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물 붕괴 사고 등의 후진적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16일 양일에 걸쳐 우리들은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제1회 건축구조기술사 대회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촉구할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각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는 아직은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개선에 대한 가능성 여부의 질의회신 및 행정지침하달, 기술사제도 개선에 의한 법령 개정작업 가속화, 용역비 현실화에 대한 이해증진 확산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우리가 기대했던것에 비하면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분야의 눈과 귀와 입이 그다지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것만은 아닌 것을 회원여러분은 잘 아실것 입니다. 우리는 겨우 막 겨울잠에서 깨어나 첫걸음을 내디디는 상황인데, 우리를 폄훼하고 착한 머슴으로 묶어두려는 무리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키워서 살아가야할 울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위에 스스로를 지키고 키워서 후배와 다음에 오는 우리의 자손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틀을 세우도록 다 함께 동참합시다. 이러한 일들은 회원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힘을 합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일임을 회원 여러분은 깊이 이해하고 계실것입니다.

이에 회장 이하 임원이 앞장서고 회원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가 갖고있는 다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언합니다.

첫째, 국민, 국회, 정부를 상대로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업무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합시다.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유대강화, 보도자료의 개발, 작성 및 배포, 매스컴 출연, 기자회견 및 기고 등을 통하여 우리회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립시다.

둘째, 건설교통부, 관련관청 및 지자체의 법령개선 준비작업을 우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합시다.

건설교통부등에 우리회 및 회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법령개선준비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실행에 옮기



이동현  
우리회 회장

도록 노력합니다.

셋째, 우리회 및 회원의 활동영역 확대 및 심화를 위하여 관련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증진하고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감리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건축학회 등의 유관단체들과 대화의 채널을 열고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동참합니다.

넷째,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회 입법청원에 한 발짝 앞으로 나섭니다.

위의 여러사항들을 입법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국회에 설득력 있는 입법초안을 작성, 제출하여 우리회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청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2006년 한 해는 작년, 재작년에 뿌린 많은 노력의 씨앗에 대한 결실을 수확하는 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우리 모두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정당한 우리의 역할을 찾아 확고히 정립하는데 역량을 한데로 모읍시다.

우리모두 희망을 갖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